

GROWTH RESEARCH

2025.07.24 (목)

[드론 산업보고서]

공급망 단절이 부른 새판짜기 K-드론은 준비됐다

Analyst. 한용희, 박서후, 강유민



목차

Part 1. 전장과 산업을 잇는 드론의 확장성과 밸류체인 구조**Part 2.** 글로벌 규제 변화와 탈중국 흐름**Part 3.** 국내 드론 산업의 전환기

기업분석

에이릭스(475580)

Intro

'24년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글로벌 드론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했다. 이는 단순히 국가 안보 차원을 넘어, 드론을 전략 무기로 규정하고 중국 산 드론 배제를 통해 기술 주권과 공급망 독립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러한 탈중국 기조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공급 공백으로 이어지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드론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해협 군사 긴장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실전 배치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드론은 이제 감시정찰 중심의 장비를 넘어 전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민간 영역에서는 농업, 물류, 건설, 재난 대응, 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드론 기반 솔루션 수요가 확대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내재화, 운영 소프트웨어, 공공 수요 확보 등의 탈 중국 기조에 함께 갈 수 있는 한국 드론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본 보고서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드론 규제 강화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드론 산업의 밸류체인 구조와 제도적 여건, 기업별 수출 역량을 점검한다. 동시에 전장 기술로서의 드론과 민간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탈중국 흐름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국내 유망 종목을 조망한다.

Part 1. 전장과 산업을 잇는 드론의 확장성과 밸류체인 구조

드론, 전장·산업 핵심 자산플랫폼

드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혹은 자율 비행을 통해 운용되는 무인 항공체로, 국방 목적의 정찰 및 타격 수단에서 출발해 현재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이 확장되고 있는 기술 기반 장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자폭정찰 드론이 방어선을 교란하고 지휘부 위치를 실시간 포착해 전투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2025년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는 AI자율비행·군집 운용·전자전 대응 기술을 결합한 드론이 정찰부터 자율 타격까지 전투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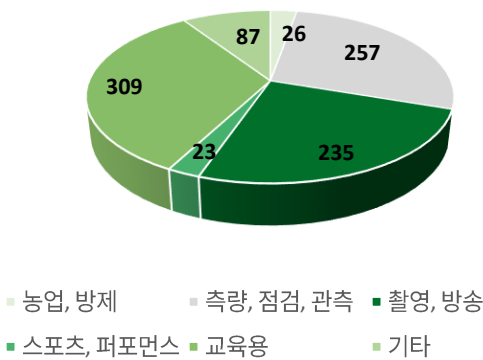
서비스형 핵심 성장동력

민간 산업에서도 드론의 활용 가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물류·시설 점검·재난 구조·항공 등 다방면에서 드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드론은 이제 단순 비행체를 넘어, 데이터 수집, 실시간 처리를 동반한 서비스형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진화와 시장 성장 전망도 밝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복합소재 적용, 고해상도 열화상 센서 탑재, 5G·위성 통신 연계로 비행시간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자율 비행 알고리즘과 군집 제어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다. 시장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2030년까지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전장과 산업 현장을 잇는 드론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서비스가 융합된 차세대 핵심 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공분야드론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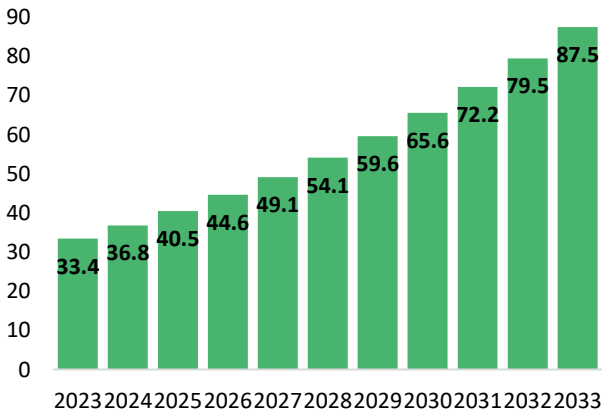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로스리서치

글로벌드론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국토교통부, 그로스리서치

드론 제작부터 서비스까지 밸류체인

드론 산업의 밸류체인은 장비 제작, 유통 판매, 무인기 운용, 서비스 제공, 수요처라는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장비 제작 단계에서는 기체 설계, 모터·비행제어장치(FC)·배터리 등 핵심 부품 생산 및 조립이 포함되며, 부품의 내재화 여부에 따라 기술 경쟁력이 결정된다. **유통 단계**는 완제품 및 부품을 판매하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이며, B2B 및 B2G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 이후 **운용 단계**에서는 무인기를 실제 운항하는 조종 시스템 및 제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정보처리 능력이 주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며,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촬영, 데이터 분석, 측량, 정찰 등 드론 기반의 부가가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수요처는 공공(군사, 재난, 치안, 국토 관리 등)과 민간(물류, 건설, 농업, 영상 제작 등) 분야로 구분되며, 산업별로 요구 사양 및 규제 기준이 상이하다.

특히 부품 국산화율과 통신 시스템의 독립성은 향후 수출 및 군수용 확대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내재화하고 있는 일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변화 속에서 전략적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 산업 구조

장비 제작	유통	운용	서비스 제공
- 기체 설계 - 모터 - FC, 배터리 - 조립	- 완제품 판매/대여 - 부품 판매/대여	- 제어 SW - 경로 설정 - 안정성 - 정보처리	- 촬영 - 데이터 측정 - 측량, 정찰
수요처			
- 공공 : 군사, 재난, 치안		- 민간 : 물류, 건설, 농업, 영상	

자료 :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 신용덕, 그로스리서치

Part 2. 글로벌 규제 변화와 탈중국 흐름

탈중국화로
떠오르는 K-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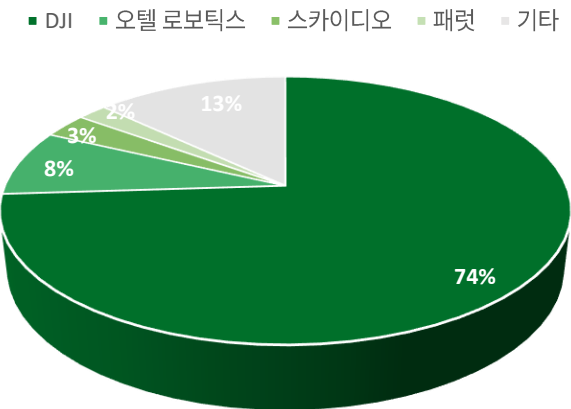
드론은 현재 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이슈는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안보와 주권 기술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년 이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4년 미국 하원을 통과한 'Countering CCP Drones Act'를 비롯해 국방수권법(NDAA) 등 법령에 따라, 중국 DJI를 포함한 다수 업체의 제품이 연방 정부 및 군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중이다.

문제는 DJI, 오텔 로보틱스 등의 중국 드론이 미국 상업용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대량 공급체계를 바탕으로 침투했던 중국산 드론이 한순간에 이탈하면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B2G)뿐 아니라 농업, 소방, 물류 분야 등에서 실질적 대체 수요가 발생하며,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 경찰, 소방, 재난안전기관에서도 DJI 드론을 대체할 제품이 없어 구매 허가를 별도로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드론 산업 수출액은 232억원으로, 전년(144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미국 드론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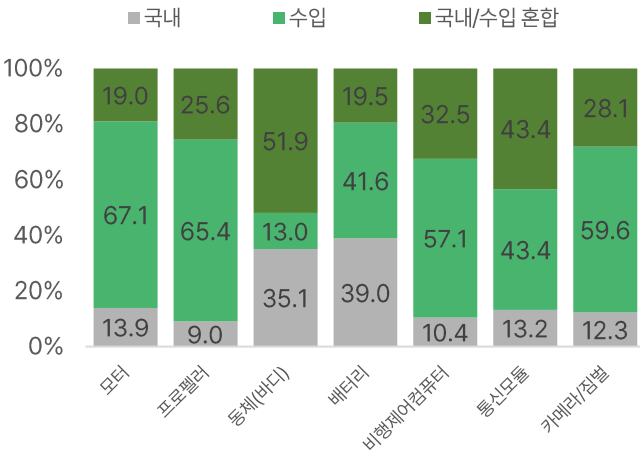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리서치앤드마켓, 그로스리서치
그로스리서치 GROWTH RESEARCH

드론 제작업체 부품별 국산화율

(단위: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로스리서치

Part 3. 국내 드론 산업의 전환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 미국의 중국산 드론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드론 산업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3년 기준 국내 드론 산업 규모는 1조 1,000억 원 규모로, '19년 이후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드론 사업체 수는 약 2배 늘어났으며, 사업자 수는 14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드론 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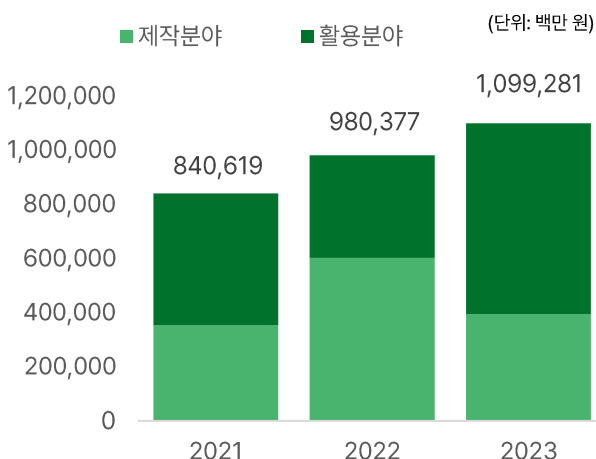
중국: 70~80% 점유율
미국: 프리미엄 장악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에 불과해, 전체 시장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진화, 대규모 생산력,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드론 시장을 선점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프리미엄 및 방산·상업용 부문은 북미와 유럽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어, 국내 드론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드론 산업의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낮은 국산화율이 쟁점

특히 중국산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의 약 41%가 수입산이며, 비행제어장치(FC), 모터, 배터리 등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도 여전히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부품 내재화의 한계는 국내 드론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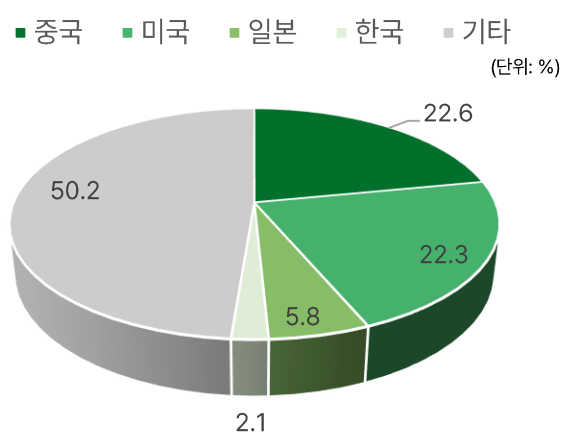
국내 드론 산업 매출액 규모



자료 : 국토교통부, 그로스리서치

그로스리서치 GROWTH RESEARCH

주요 국가별 건설 및 에너지 분야 드론 시장 점유율



자료 : 국토교통부, 그로스리서치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미국이 중국 드론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춰 국산 드론이 높은 시장 입지를 갖추기 위한 행보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드론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지원

정부는 드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상용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드론 완성체 5대 프로젝트,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등 국산화 중심의 사업을 통해 핵심 부품 자립과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 거점에 시험장인증센터·스마트 팩토리 등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 드론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정부 주도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드론 제조업체들이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수출 증가 추세

국내 드론 산업은 정부 지원과 글로벌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24년 기준 K-드론 수출이 전년대비 62% 증가하며 일부 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드론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산 드론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5년 상반기 국내 방산 및 드론 관련 업체 주요 동향

분류	기업	이슈
대형 방산 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드론의 군사용/산업용 활용전략 구상 美 드론기업 프로텀 테크놀로지스 지분 인수
	LIG넥스원	美 드론기업 Skydio와 업무협약체결 -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용 드론 공동 개발
드론 관련 업체	에어릭스	美 공군에 소형드론 납품 완료 드론 CCTV, 홈시큐리티 드론 등으로 사업확장
	파블로항공	미국/베트남 등에 드론쇼 기체 수출 CES 2025 혁신상(도심항공교통 관리 플랫폼)
	니어스랩	CES 2025 최고혁신상 - 자율비행 드론 무인화 솔루션

Part 4. 관련기업

드론 관련 기업

기업명	기업개요	시가총액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51380)	· '77년 설립, '87년 코스피 상장 ('15년 한화그룹 편입) · 주요사업: 항공기 엔진, 자주포, 우주발사체 등 개발 및 생산 · 매출 비중: 해양 61.21%, 방산사업 27.45%, 항공 9.01%, IT서비스 등 1.32%, 기타 1.01% ·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과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그레이 이글(GE)-STOL' 공동 개발 · 무인기 체계 및 엔진 개발, 시설 구축 등에 7,500억원 투입 예정	46조 5,618억원
한국항공우주 (047080)	· '99년 설립, '11년 코스피 상장 · 주요사업: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등 개발 및 정비 · 매출비중: 방산 및 완제기수출 53.07%, 기체 부품 28.81%, 기타 18.12% · 소형 무인기 업체 '디브레인'과 투자계약 체결하며 2대 주주 등극 · RQ-101(송골매) 등 군단급 무인기, 중·대형급 ALC 군용 UAV 개발 및 양산	8조 9,872억원
에이릭스 (475580)	· '15년 설립, '24년 코스닥 상장 · 주요사업: 로봇 및 드론 제조, 코딩 관련 교구제 개발 및 생산·판매 · 매출비중 : 제품(로봇/드론) 25.6%, 상품(기타교구재) 5.5%, 용역 62.9%, 기타 6.0% 차지 · FC(비행제어장치), ESC(변속기)와 모터 등 드론 핵심부품 내재화 국내 유일 업체 · '24년 美 공군에 드론 납품한 레퍼런스 이력 보유 · '24년 기준 드론 미국향 수출 매출액 65억원 기록	1,561억 원
네온테크 (306620)	· '00년 설립, '20년 코스닥 상장 · 주요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 장비 제조 및 판매. 신사업으로 드론 기체제작 및 운용 시스템 판매 · 매출비중 : 장비사업부 20.4%, 드론사업부 0.3%, FA사업부 9.8% 전자&자동화 사업부 69.5%, 기타 0.1% · '25년 7월 연구 개발 자금 활용을 위한 32억 규모 제 3자 유상증자 결정 해당 자금으로 스마트 방재 드론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 · LIG넥스원과 VTOL 기반 군용 목적의 드론 개발, 공급 업무협약 체결	945억 원

에어릭스(475580)

중국산 드론의 장점, 모두 가져온 국산 플레이어

투자포인트

교육부터 드론 사업까지
A to Z

확률 높은 발전 가능성

중국 드론의 장점이
에어릭스에게

드론과 코딩 교육부터 제조까지 기술 교육 전문 기업

동사는 '15년 설립되어 '2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교육용 로봇/드론 제조 및 교육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교육용 로봇과 경량 비행제어 드론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이 있다. 최근 정부의 드론 산업 확대 정책과 대외적인 이슈에 맞물려 성장이 기대된다. '24년 기준 연결 매출 비중은 **드론 19.8%, 로봇 및 기타 교구재 12.3%, 상품매출 7.7% 용역매출 59.2% 기타매출 1.0%**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주주로는 이치헌 대표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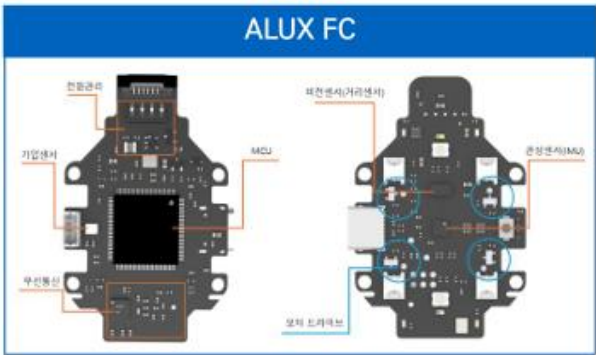
자체 FC로 '초경량·제조원가·안보' 일석삼조

동사는 드론의 핵심 부품인 비행제어장치(FC)를 자체 개발해 초경량화를 실현하고, 제조 원가를 약 20달러 이상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자체 FC는 데이터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의 기관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들 국가에서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1/10의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 본다

동사의 대표적인 상품인 코딩 드론과 배틀 드론의 가격은 \$80~130에 형성되어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드론의 가격(\$500~15,000)에 비해 현저히 낮고, 미국 시장에 진입한 타 국가의 드론 대비로도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진다. 일본의 대표 업체 ASCL이 미국 정부 기관에 납품 중인 소형 카메라드론 SOTEN의 가격은 \$14,550에 달하며, 대만의 Thunder Tiger의 Overkill FPV 드론 역시 \$300-\$600 달러 수준에 포지셔닝 되어있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동사의 제품이 중국산 드론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온 '저가·고효율' 특성을 일부분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제 강화 기조 하에 동사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사 자체 FC



주요 드론 가격 비교

국가	업체	대표 드론 용도	가격 (단위: \$)
한국	에어릭스	교육용 및 훈련용	80-130
미국	Skydio, Teal Drones 등	방산, 보안	500-15,000
일본	ASCL	방산, 보안	14,550 내외
대만	Thunder Tiger Corp	방산(자폭 드론)	300-600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쓰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